

<목차>

1. 서론
2.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일’ 도입과 시행
3.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일’ 내용과 성격
4. 결론

1. 서론

‘아동보호일’¹⁾은 1927년 5월 5일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제정한 한 또 하나의 어린이날이다. ‘아동보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에서 부각된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 이에 일본은 ‘아동보호’를 교육과 사회정책 안에 넣었으며, 식민지 아동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총독부도 1921년 내무국 사회과를 설치하면서 ‘아동보호’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정책은 아동을 미래의 제국신민으로 육성코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1922년부터 조선에서는 어린이날이 개최되고 조선인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자 조선총독부의 아동정책이 광범위하게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어린이날을 탄압하면서 1926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전국아동보호사업대회의 결의에 따라 ‘아동보호일’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²⁾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일’은 조선인과 일본인 아동을 같이 참가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던 만큼 ‘내선융화’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1920년대는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명목 아래 외면적으로 정책의 유연화가 이뤄진 시기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일’ 시행과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은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정책을 밝히고, 나아가 식민지에서 활용할 조선인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배경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일’ 연구 성과는 역사학을 비롯해 문학·사회학·사회복지학·교육학·유아교육학 분야에서 그 실태와 영향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들 연구에서는 대부분 어린이날 탄압책 또는 유아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시행되었다고

1) 兒童保護日에서 ‘아동’은 태아(胎兒), 젖먹이(乳兒), 어린아이(幼兒), 학동(學童), 취업아동(就業兒童)을 말한다(生江孝之, 『兒童と社會』, 兒童保護研究會, 1923, 34쪽). 또, ‘아동보호일’은 신문과 잡지에서 ‘兒童愛護데이’·‘乳幼兒愛護데이’·‘兒童愛護の日’·‘乳幼兒並兒童愛護데이’·‘乳幼兒保護日’ 등으로 혼용되었다. 여기서 ‘아동보호’는 공문서에서 ‘애호’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예로 내무성 사회국에서 발행한 자료(內務省社會局, 『兒童保護の最低標準』(1920))나 조선총독부 사회과(『朝鮮社會事業要覽』·『朝鮮の社會事業』)에서 발행한 자료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아동보호일’은 1927년 4월 『每日申報』에 처음 공개된 공식 이름이었다. 이 글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아동보호일’로 명칭을 통일한다.

2) 1926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도쿄에서 처음 개최된 전국아동보호사업대회는 일본 중앙사회사업협회에서 주최하였다. 이 협회는 일본 내무성 사회국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였다. 이후 이 협회에서 주최한 전국아동보호사업대회의 내용은 일본과 조선총독부에 적용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兒童保護事業 제일회 회의』, 『每日申報』, 1926년 12월 4일 4면).

그리고 ‘아동보호일’은 당시 간행물에서 ‘兒童愛護데이’·‘乳幼兒愛護데이’·‘兒童愛護の日’·‘乳幼兒並兒童愛護데이’·‘乳幼兒保護日’ 등으로 혼용되었지만 1927년 『매일신보』의 기사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였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위의 용어들은 ‘아동보호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하였다. 먼저, 어린이날 탄압책으로 시행했다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상금은 처음으로 ‘유유아애호운동’을 밝히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어린이날을 탄압하는 과정 속에서 시행되었다고 하면서 『동아일보』의 한 기사와 『朝鮮日報』의 단 두 기사만을 인용하여 짧게 정리하였기 때문에 ‘아동보호일’의 시행배경과 그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³⁾

김혜경은 일제강점기 ‘어린이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정리하면서 조선총독부의 아동사회사업의 의도를 밝혔다. 또,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일’은 유아사망률의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어린이날 탄압에 이용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동보호일’의 시행배경을 비롯해 최초 시행년도를 1931년으로 보는 오류를 범했다.⁴⁾

이경민은 조선인의 어린이날이 확산되자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그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1928년 ‘유유아애호데이’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31년까지 활동 내용을 토대로 만주침략을 기점으로 제국주의 팽창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로써 조선인 아동의 건강관리에 개입했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유유아애호데이’의 시행과정 내용이 서술되지 않은 점과 시행 부서의 오류 및 시기 문제에 오류를 범한 문제점이 있다.⁵⁾

국성하는 당시 조선인들이 시행하고 있던 ‘어린이 날’을 총독부의 ‘아동애호데이’와 비교 검토하였다. 하지만 ‘아동애호데이’의 시행과정과 내무국 사회과의 ‘유유아애호데이’의 차별점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아동애호데이’의 성격을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라고 하여 조선총독부의 식민 지배 실상을 고찰하지 못하였다.⁶⁾

그리고 유아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시행했다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정란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사회사업을 정리하면서 ‘유유아애호주간’의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유아사망률에 초점을 둔 나머지 ‘아동보호일’의 시행배경과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다.⁷⁾

일본에서는 다나카 이리에 유카코가 식민지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1920년대 ‘아동보호일’의 시행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하지만 다나카는 조선의 유아사망률을 근거로 하여 조선사회사업협회의 활동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조선총독부의 지배실상을 밝히지 않았다.⁸⁾

이 밖에도 송치호는 조선사회사업협회의 사업 중 아동보호사업을 정리해 조선총독부의 지배실상을 밝혔다. 또, ‘유유아애호주간’의 시행과정에서 전국아동보호사업대회를 밝혔으나 최초 시행년도를 잘못 파악하였다.⁹⁾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일’을 조선인의 어린이날에 대한 탄압책 또는 유아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총독부의 정책으로 보았다. 또, ‘아동보호일’ 시행 일시와 명칭

3) 이상금, 「초기 어린이운동의 성립과 교육적 의의」, 『한국문화연구원논총』 59(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91.

4) 김혜경, 「일제하 ‘어린이기’의 형성과 가족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5) 이경민, 「사진」 전시되는 어린이 또는 아동의 탄생」, 『황해문화』 62, 새얼문화재단, 2009.

6) 국성하, 「어린이 개념의 변화에 관한 연구-1920년대 신문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2(1), 한국교육사학회, 2010.

7) 朴貞蘭, 「韓國における社會事業の成立と展開に關する研究」, 日本女子大學 文學研究科 博士學位 論文, 1997.

8) 田中入江友佳子, 『植民地朝鮮の兒童保護史-植民地政策の展開と子育ての変容-』, 勁草書房, 2018.

9) 송치호, 「일제시기 조선사회사업협회의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식민지배 도구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을 다르게 쓰고 있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보호일’ 시행과 성격이 갖는 식민지 지배정책사적인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27년 5월 5일 ‘아동보호일’ 제정을 공식화했으며, 시행 직후 내무국과 학무국에서 행사를 주관했다. 그리고 ‘아동보호일’이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개최되었으며, 전국아동보호사업대회의 결의에 따라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27년부터 1930년까지로 ‘아동보호일’이 처음 제정되고 행사를 추진하던 때다. 제2기는 성격이 다른 ‘아동보호’ 관련 행사를 하나로 묶어 ‘아동애호주간’으로 통합 시행되던 시기다. 마지막 제3기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인의 어린이날을 폐지함과 동시에 ‘아동애호주간’을 국민총력연맹에서 관리하게 했다. 즉, ‘아동보호일’은 전시체제를 맞아 전쟁 동원에 초점이 맞춰진 시기다.

이 글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아동보호일’을 도입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1927년부터 1930년까지의 ‘아동보호일’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아동정책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일’ 도입과 시행

1) 조선총독부의 아동정책 도입

조선총독부의 아동정책은 당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에서 부각된 아동보호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순수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식민지에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이후 제정한 ‘아동보호일’을 통해 그 의도를 달성하려 했다.

조선총독부의 아동인식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아동보호운동에서 참고하였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勞動省(U.S Department of Labor) 안에 兒童保護局(The US Children's Bureau)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48주 중 절반 이상이 아동국을 설치하여 지도, 선전 및 감독사무에 힘을 쏟았다.¹⁰⁾ 또한 최초로 ‘兒童保護年(Children's day)’을 시행하여 사회적 운동을 전개하였다.¹¹⁾ 이는 국제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이에 일본은 미국의 선례를 보고 아동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 부각되었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었다.¹²⁾ 1917년 8월 일본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내각은 내무성 지방국에 구호과를 설치하여 진휼구제(賑恤救濟), 군사구호(軍師救護), 도부현(道府縣)의 빈원(貧院), 맹아원(盲啞院), 풍전원(瘋癲院), 육아원(育兒院) 및 감화원(感化院) 등 시설을 담당케 하였다.¹³⁾ 그러나 1918년 일본의 시베리아 혁명 간섭전쟁을 계기로 쌀 값이 폭등하여 전국적인 쌀 폭동으로 이어졌다.¹⁴⁾ 하지만 데라우치 내각은 쌀 폭동에 가담한 자

10) 松野勝太郎, 『兒童愛護と子供の權利』, 愛媛縣社會事業協會, 1924, 生江孝之 序 ; 生江孝之, 『兒童と社會』, 1923, 26~27쪽.

11) 生江孝之, 『兒童と社會』, 1923, 144~145쪽 ; 1915년 미국에서는 ‘아동보호’와 관련해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우량아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동시에 아동의 건강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다. 이에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현주, 「1910년에서 1930년까지 미국과 한국에서의 “베이비 쇼(Baby Show)”에 관한 소고」, 『미국사연구』 46, 한국미국사학회, 2017, 219, 228~229쪽).

12) 일본은 1910년대 인구 도시집중 현상에 따른 실업문제와 이에 따른 쌀값이 폭등하였다.

13) 『社會局事務概要』, 社會局庶務課, 1931, 1쪽.

14) 쌀 폭동은 1918년 7월 토야마현(富山縣) 우오즈초(魚津町)의 여성 봉기를 시작으로 일본 각지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들을 사회주의자로 규정하고찰과 군인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했으나,¹⁵⁾ 이는 사회적 비판을 사게 되었고 결국 데라우치 내각은 총 사임하였다.

그리고 데라우치 내각 사임 후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은 1919년 11월 내무성 구호과를 사회과로 개칭하였다. 이후 1920년 8월 칙령 285호로 내무성 사회과를 사회국으로 바꾸면서 그 조직을 확대시켰다.¹⁶⁾ 사회국의 주요업무는 진흥구제, 군사구호, 실업(失業) 구제 및 방지, 아동보호, 기타 사회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¹⁷⁾ 그리고 중앙사회사업협회와 연계하면서 각 지방에 아동정책을 확장시켜 나갔다.¹⁸⁾ 또, 각 지방에 아동보호사업이 전개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아동애호운동’이 일어났다.¹⁹⁾

이러한 일본의 ‘아동보호’방법은 당시 국제 사회의 아동보호 방법과 관련이 있다. 일본이 사회국을 설치하기 이전인 1920년 5월 미국에서 개최된 아동보호협의회에 참석하고, 미국의 방법을 연구하였다.²⁰⁾ 그러다 1921년 일본은 제2회 국제소년보호회의에서 논의된 ‘아동보호’방법을 채용하였는데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²¹⁾

- 一. 아동의 물질적 및 정신적 보호, 특히 영아의 보호
 - 一. 아동의 사회적 위생에 관한 연구
 - 一. 가정 및 환경의 개선
 - 一. 가정적 경우에서의 아동의 정신적 감독
 - 一. 친권 및 보호권의 형성 및 제한
 - 一. 사생아의 보호, 걸아 防遏
 - 一. 부랑아 및 범죄아의 防遏

15) 「내지 米騒動 속보, 내지 쌀소동은 날마다 심각하다. 군중도처 폭행, 5인 이상의 집단을 엄금, 神戸의 대쟁투, 米千俵를소실함, 米店을 습격, 군중 경관 충돌, 구인 2백여 명」, 『毎日申報』, 1918년 8월 16일 3면; 「검거된 자가 千有餘名, 쌀소동으로 인하여」, 『毎日申報』, 1918년 8월 27일 4면.

16) 사회국 설치의 내무성 지방국장 이노우에 도모이치(井上友一)의 영향으로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계획도 연관되어 있었다. 조경희, 「1920년대 식민지조선 사회사업의 성격과 그 한계」, 『역사와 담론』 80, 호서사학회, 2016, 96쪽.

17) 『社會局事務概要』, 社會局庶務課, 1931, 1쪽.

18) 1908년에 설립된 일본 중앙자선협회(中央慈善協會)는 1921년 중앙사회사업협회(中央社會事業協會)로 개칭되었다(尹晷郁, 『植民地朝鮮における社會事業政策』, 大阪經濟法科大学出版部, 1996, 297쪽). 중앙사회사업협회는 일본 내무성 사회국의 후원을 받아 각 지방의 사회사업단체와 사회사업을 실시하였다. 중앙사회사업협회는 잡지 『社會事業』, 『融和』, 『厚生問題』 등을 발간하였다. 또한 『사회사업보고서』, 『전국방면위원회의보고서』, 『사회사업연감』, 『전국아동보호사업회의보고서』 등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19) 1921년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아동애호운동’이 일어났다. 도쿄에서는 일본유치원협회 주최로 ‘유아보호선전데이(乳兒保護宣傳デー)’가 일어났고, 오사카에서는 11월 6일 ‘아동애호선전데이(兒童愛護宣傳デー)’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나카무라 오사무는 1921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乳幼兒愛護宣傳デー’가 최초로 일어난 아동애호운동이라고만 언급했다(나카무라 오사무, 김영순 감수, 「조선아동문화 연구(1920~1925)-어린이날의 발생, 소년소녀잡지 발간, 경성방송국의 어린이 시간을 중심으로-」, 434쪽). 하지만 같은 해 일본유치원협회가 도쿄에서 ‘유아보호선전데이’를 개최한 사실이 드러난다(生江孝之, 『兒童と社會』, 143~145쪽).

20) 1920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에서 아동보호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에서 미국, 일본,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세르비아의 대표자가 출석하였다(『社會局事務概要』, 1931, 1쪽).

21) 일본은 내무서기관 유자와(湯澤)를 보내 이 회의에 참석케 했다. 이 국제회의는 서구 국가의 산업혁명으로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가 행해지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운동의 영향으로 1913년에 개최되었다. 1913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회의에서는 국제소년보호국 건설을 논의하였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회의는 잠시 중단되었다. 그리고 192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2회 국제회의에서 국제소년보호국을 벨기에 브뤼셀에 설치하는 것을 결정하였다.(生江孝之, 『兒童と社會』, 29~30쪽, 32쪽).

- 一. 소년재판의 조직 및 소년방환의 보호
- 一. 위탁아의 보호
- 一. 아동에 대한 범죄의 억압
- 一. 이상아의 감별 및 교육
- 一. 빈아부조문제의 연구 및 유기아 또는 피학대아에 대한 보호
- 一. 아동을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입은 모든 사정의 교정
- 一. 식민지에서의 아동보호
- 一. '베르사유'조약의 제1부 및 제13조의 권리의 보류에 관한 모든 문제

위 내용은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논의된 '아동보호'방법 중 채용한 사항이다. 일본이 채용한 방법은 국가·사회·가정에서 '公共'으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부각된 영아와 사생아의 보호, 이상아 감별 및 교육, 친권제한, 빈아 부조 문제, 식민지 아동보호 등과 같은 문제를 주요 정책의 범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²²⁾ 즉,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아동보호'방법 중 일부를 채용하여 사회국 업무에 참고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이 채택한 '아동보호' 방법은 식민지에서도 적용이 되어 일반적인 아동보호가 아닌 식민지에서 특별하게 관리되는 것이었다. 즉, 조선총독부의 아동정책은 '충량한 제국신민'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책만을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이 국제 사회 흐름 속에서 부각된 '아동보호'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한 반면에 조선총독부의 아동정책은 1919년 이후 3.1운동으로 인한 조선인들의 불만과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을 잠재우기 위해 시행되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아동정책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학교에서 식민교육으로 식민지에서 활용할 '충량한 제국신민'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孤兒와 盲兒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아원과 제생원을 운영하는 정도였다.²³⁾ 그러나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 방향의 변화가 필수적이었고, 그 방향은 하라 다카시의 내지연장주의에 따라 일본에 있던 정책기구들이 설치되었다.²⁴⁾ 이에 따르면 조선인과 일본인을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일시동인(一視同仁)의 관점에서 조선인을 '충량한 신민'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⁵⁾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와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는 이에 따라 일본의 정책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1921년 조선총독부는 사회과를 설치하여 아동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²⁶⁾ 그리고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

22) 生江孝之, 『兒童と社會』, 32~33쪽.

23)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아동에게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이 아닌 식민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기르기 위해 철저한 식민교육을 실시하여 '충량한 제국신민'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밖에도 제생원과 고아원을 총독부 산하에 두어 일반 아동부터 특수 아동까지 관리하였다; 朴貞蘭, 『韓國における社會事業の成立と展開に關する研究』, 日本女子大學 文學研究科 博士學位 論文, 1997; 소현숙, 「경계에 선 고아들-고아문제를 통해 본 일제시기 사회사업-」, 『사회와 역사』 73, 한국사회사학회, 2007; 조경희, 「'온정'과 '교화'의 식민주의」, 『역사문제연구』 25, 역사문제연구소, 2011.

24) 특히 조선에서 이른바 '내선융화, 즉 내지연장주의를 주장하면서 일본과 조선의 동일화를 주창하기도 하였다. 주지하듯 이러한 정책은 조선인에 대한 반일 감정을 억누르고 조선 사회를 분열 통치하기 위한 꾀수에 불과하였다.

25) 조선총독부 저, 이충호 편역, 『조선통치 비화』, 국학자료원, 2012, 94쪽.

26)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中左ノ通改定ス」 훈령 제45호, 『朝鮮總督府官報』 2689, 1921년 7월 27일 1면;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 설치는 1918년 쌀 폭동과 빈곤 및 노동자 문제·소작쟁의·사회주의사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일본뿐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정부의 할 일로 새롭게 부각된 업무였다(서호철, 「조선총독부 내무부와 식민지의 내무행정

기 위해 각 도에 사회과를 두었고, 1921년 4월 조선사회사업연구회를 조직하여 사회사업을 전개하였다.²⁷⁾ 또, 정무총감으로 부임한 미즈노는 아동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다수의 도쿄제국 대학 출신이면서 내무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들을 총독부로 불러들였다.²⁸⁾ 미즈노가 불러들인 자들은 당시 식민지 본토에서 확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회사업적 측면으로 아동보호 인식과 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경무국장을 역임했던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는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총독부 기관지 『朝鮮』과 『每日申報』에 연재하였다.²⁹⁾ 마루야마는 아동을 ‘장래가 있는 자’로 인식하면서 아동 양육방법과 교육방법을 강조하였다. 특히 마루야마는 아동을 ‘장래가 있는 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건전한 사상’을 주입하고, “어떠한 품격과 특성을 갖추게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동 정책은 “우리 일본 제국의 국운을 지배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³⁰⁾

그리고 마루야마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에서의 인구 증가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인구 증가의 필요성을 과거 보불전쟁에서 프랑스와 비교하여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³¹⁾ 즉, 향후 벌어질지 모를 전쟁에 대비하여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전쟁터에 보낼 군인 또는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마루야마는 인구 증가의 방법으로 영아보육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영아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한 우유배급·탁아소 설치와 같은 방안을 제기하였다. 이밖에도 빈아교육·아동학대방지에 대해 강조하여 국가·사회·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할 것을 주장하였다.³²⁾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정책은 주로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총독부는 제생원(濟生院)을 비롯해 사회사업단체였던 가마쿠라보육원(鎌倉保育院), 구세군 육아 ‘홈’(救世軍育兒ホーム), 화광교원(和光教園), 천주교영아원(天主教嬰兒園), 경성보육원

-지방과 사회과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2, 한국사회사학회, 2014, 58~59쪽).

27) 조선사회사업연구회는 1921년 4월에 설립되었다. 이 연구회는 조선총독부 관리들이 참여한 반민반관 단체였다. 이 연구회는 조선 각지의 사회사업을 연결하여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1928년 조선사회사업협회로 개칭한 후 그들의 활동은 더욱 강화되었고, 1929년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이 연구회는 간행물로 『朝鮮社會事業』(1923년 5월~), 『同胞愛』(1935년 7월~), 『朝鮮社會事業』(1940년 1월~), 『朝鮮厚生事業』(1943년 11월~1944년 1월)을 간행하였다. 이 잡지의 내용은 연구논문·입법관계·대회보고·사망률 통계·조선총독부의 시정방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朝鮮社會事業要覽』, 朝鮮總督府 內務局 社會課, 1923, 27쪽; 송치호, 「일제시기 조선사회사업협회의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식민지배 도구적 성격」을 중심으로-, 8쪽; 예지숙,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정책의 전개와 성격(1910년~1936년)」, 83쪽).

28) 미즈노가 조선으로 데려온 관리들은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 총독 비서관), 사와다 도요타케(澤田豐丈, 내무국 제1과장), 야지마 스기조(矢島杉造, 내무국 제2과장), 아케이케 아츠시(赤池濃, 경무국장, 내무국장, 제생원장),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경무국 사무관), 마쓰무라 마쓰모리(松村松盛, 전라북도 제3부장) 등이었다(『朝鮮總督府官報』 2115, 1919년 8월 28일 2~7면); 예지숙,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정책의 전개와 성격(1910년~1936년)」, 58쪽.

29) 마루야마는 1921년 6월 잡지 『朝鮮』에 「兒童保護事業に就て」를 게재하였고, 같은해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每日申報』에 다섯 차례 걸쳐 연재하였다. 그 내용은 동일하였다.

30) 丸山鶴吉, 「兒童保護事業에 就하여 (一)」, 『每日申報』, 1921년 12월 5일 1면.

31) 마루야마는 보불전쟁에서 프랑스의 사례를 들면서 국운을 지배하는 중대한 문제와 함께 인구증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보불전쟁에서 프랑스 인구가 독일 인구보다 2천만 명 더 많았다면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丸山鶴吉, 「兒童保護事業에 就하여 (二)」, 『每日申報』, 1921년 12월 6일 1면).

32) 丸山鶴吉, 「兒童保護事業에 就하여 (四)」, 『每日申報』, 1921년 12월 8일 1면; 丸山鶴吉, 「兒童保護事業에 就하여 (五)」, 『每日申報』, 1921년 12월 10일 1면.

(京城保育院) 등에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했다.³³⁾ 그래서 이들 기관은 아동상담소 설치, 감화 교육, 고아 및 빈아 양육, 도제(徒弟)와 노동자의 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선총독부의 종교후원이다

조선총독부는 한국을 병탄하기 전부터 서구 국가의 선교사들로부터 전개된 아동사업을 경계하였다. 선교사들의 아동사업은 무료진찰, 고아 양육, 불구자 구제 등과 같은 박애사업이 중심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활동을 지속해 오던 선교사들을 회유, 또는 후원하면서 자신들의 정책 영역에 편입시켰다. 이러한 의도는 총독부 당국이 선교사들과 가졌던 다과회 석상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아동정책의 취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무리 종교가라 하더라도 일본 영토에서 일본 신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그 학생의 국적에 유의해야 할 것이고 일본의 국민교육주의에 따라 그 자제를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 관헌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종교가의 본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본국은 어린 일본인 2세의 교육을 선교사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중대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어떤 비평가의 말에 의하면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 중에는 조선이 일본의 일부이고, 조선인이 일본의 신민이라는 사실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선교사 여러분들은 일본을 잘 알고, 일본인의 국민사상, 일본의 제도·관습 등을 잘 이해한 후 관헌과 협력하여 조선인 자제를 일본 법령 하에서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신민으로서 조선인이 일본인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상호간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³⁴⁾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아동을 ‘충량한 제국신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력을 다하였지만, 선교사들의 아동사업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선교사들을 회유하고 그들의 정책을 선전하여 선교사들이 ‘충량한 제국신민’ 육성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³⁵⁾

이처럼 조선총독부의 아동정책은 국제 사회 흐름과 1919년 3.1운동 이후 식민통치를 바꾸면서 등장했다. 그리고 아동정책을 시행하는 한편으로 선교사들을 회유하여 그들의 정책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아동정책을 전개해가는 한편으로 재조일본인들에 의해서도 ‘아동애호’ 사업이 이루어졌다. 1923년 경성소년단(京城少年團)을 설립했던 사다 시코(佐田至弘)는 조선애호연맹(朝鮮愛護聯盟)을 설립하였다.³⁶⁾ 이 연맹은 1925년에 ‘조선아동협회(朝鮮兒童協會)’로 개칭되

33)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초반 탁아소를 설치하였다. 일본은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위기를 겪자 산미증식계획을 중지하였다. 그리고 농촌진흥정책을 실시하여 농민을 수탈하였고, 남녀 모두 원활하게 수탈하기 위해서는 탁아소를 필요로 하였다(이윤진, 「일제 강점기 농번기 탁아정책 고찰-1930년대~194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32, 2003).

34) 조선총독부 저, 이충호 편역, 『조선통치 비화』, 191~192쪽.

35) 강동진은 “조선총독부의 ‘拜迎主義’적 선교사 회유의 목적이 대외관계의 호전을 꾀하면서 선교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조선민중의 반일기운을 가라앉히려려고 했다는 데 있었다”고 하였다(강동진,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 한길사, 1980, 89~90쪽 참조). ; 1920년대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은 금전적인 문제로 아동보호사업을 전개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의료분야 및 공중보건 분야를 간섭하여 선교사들의 의사면허 및 병원 경영에 영향을 주었다(Sonja M. Kim, “Missionaries and ‘Better Baby Movement’ in Colonial Korea”, *Divine Domesticities: Christian Paradoxes in Asia and the Pacific*, 2014, p.65).

36) 사다 시코는 1920년 5월 7일, 11일, 13일 『京城日報』에 소설 「미요코의 아빠(美代子の父)」를 3차례 연재하고, 『경성일보사지』(1920)에 사회부 기자로 있었다. 1923년 조선동화보급회를 주재(主宰)하고, 같은해 경성소년의용단(1925년 1월 경성 소년단 개칭)을 설립하였다(김광식, 「식민지기 재조일본인

었다. 이 협회는 잡지 『兒童愛護』를 간행하였고, 강연회를 개최하였다.³⁷⁾ 조선아동협회는 학무국장이 회장으로 취임하고,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받아 아동사업을 확대하였다. 사다는 내무국장 오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郎)와 경무국장 마루야마 츠루키치에게 다시 아동사업확대 계획을 가져가 찬성을 받았다. 조선아동협회는 조선총독부의 후원과 회장 직위의 모습을 보았을 때 반민반관(半民半官)의 성격을 보여준다.³⁸⁾ 조선아동협회는 1926년에 부산에 지부를 설치하고, 아동대회를 개최하여 조선총독부의 아동정책을 수행하였다.³⁹⁾

1926년에 경성에서도 일본인들은 경성아동협회(京城兒童協會)를 설립하고, ‘아동애호데이(兒童愛護日)’를 개최하였다. 경성아동협회는 ‘어린이’를 ‘애호’할 목적으로 설립했다면서, 5월 5일과 10월 15일을 ‘아동애호데이’로 정하고 전국에 걸쳐 1만 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경성아동협회의 임원진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민간단체로 보이는 경성아동협회는 사실상 어용단체에 불과하였다. 경성아동협회는 조선총독부의 도움을 얻어 각지에 아동회관과 도서관을 건설하고, 강연회와 전람회를 개최했으며, 아동 및 부인상담소 설치를 추진하기도 했다.⁴⁰⁾ 경성아동협회의 ‘아동애호데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 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된 최초의 행사였다. 이 행사는 주로 일본 아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듬 해 처음 시작된 조선 내 ‘아동보호일’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⁴¹⁾

2)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일 시행

조선총독부는 아동에 대해 교육과 사회정책을 전개하였지만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어린이’ 소년운동이 일어났다.⁴²⁾ 특히 1922년 5월 1일 천도교소년회에서 처음 개최한 ‘어린이의 날’의 행사는 ‘소년보호’ 즉,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행사내용은 당시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아동애호선전데이’와 상당히 유사하였다.⁴³⁾

그럼에도 조선총독부는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 상당한 경계를 가졌다. 특히 1923년 4월 17일 천도교소년회는 불교소년회(佛敎少年會)·조선소년군(朝鮮少年軍)⁴⁴⁾·조선소년단(朝鮮少年

의 구연동화 활용과 전개양상’, 25~26쪽).

37) 잡지 『兒童愛護』는 현재 1926년 4월호(제1권 제1호)와 6월호(제1권 제2호) 두 권이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에 소장되어있다. 현재 이 두 권만이 확인가능하다.

38) 田中入江友佳子, 『植民地朝鮮の兒童保護史-植民地政策の展開と子育ての変容-』, 97쪽.

39) 「朝鮮兒童協會 釜山支部發會式-一千の兒童が參集した西本願寺式場の盛觀-」, 『釜山日報』, 1926년 11월 26일 11면 ; 조선아동협회 주축이었던 사다 시코(佐田至弘)는 아동교양의 도서를 반포(頒布)하고, 강연회 개최 등의 목적으로 학무국장 이진호에게 1927년도 사업비 중 경비보조금 700원을 신청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아동협회를 후원하였지만 그 활동의 의의에 미치지 못하여 적절한 시설(施設)을 원조·장려하기 위해 경비 500원을 원조하였다(學務局 學務課, 「朝鮮兒童協會 經費補助ノ件」, CJA0004704 - 0027154471, 1927, 3쪽).

40) 「兒童世界를 開拓코자 兒童協會를 創立 全鮮的으로 會員募集 어린이들을 애호할 목적으로 경성에 아동협회를 창설한다」, 『每日申報』, 1926년 1월 16일 2면.

41) 1927년 이후 ‘아동보호일’이 시행되면서 이 때 건설된 도서관, 아동회관, 상담소 등이 활용되었고, 활동내용 또한 유사한 측면이 있다.

42) 조선인의 소년운동은 다음과 같은 연구가 참고된다(오세창, 「일제하 한국소년운동사연구」, 『민족문화논총』 1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2 ; 박철하,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0-청년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43) 천도교소년회는 ‘어린이의 날’ 개최를 위해 총독부에 허가원을 제출했으나 당국은 이를 주저하다 몇 시간 이후에야 이를 허가했다고 한다(「街路로趣旨宣傳, 자동차대와 창가대로 난호아 작일 ‘어린이의 날’의 대선연」, 『동아일보』, 1922년 5월 2일 3면) ; 나카무라 오사무는 천도교의 어린이날이 오사카에서 개최된 ‘아동애호선전데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카무라 오사무는 천도교의 어린이날 활동 모습이 오사카의 ‘아동애호선전데이’의 활동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다(나카무라 오사무, 김영순 감수, 「조선아동문화 연구(1920~1925)-어린이날의 발생, 소년소녀잡지 발간, 경성방송국의 어린이 시간을 중심으로-」, 434~435쪽).

團)⁴⁵⁾ 등 40여개의 소년운동단체 관계자들과 모여 조선소년운동협회(朝鮮少年運動協會)를 조직하였다. 조선소년운동협회는 매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선전지 20만장을 인쇄하여 전국 각지에 배포하며 소년과 어른을 대상으로 기념소년연예회(紀念少年演藝會)와 소년문제강연회⁴⁶⁾를 개최하기로 하였다.⁴⁷⁾ 그리고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이 천도교당에 개최되어 시내 각 소년단체 회원과 보통학교 학생 1,000여명, 기타 소년운동 관계자들이 모여 어린이날 기념 축하식을 거행하였다.⁴⁸⁾ 또, 어린이날 당일 2,000명의 소년이 시내에서 선전행렬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5월 1일이 노동제일(勞動祭日)이라는 이유로 행사의 취지에 관한 의혹을 버리지 않았다. 당시 조선소년운동협회 간부들은 이에 대한 해명을 통해 허가를 받곤 했지만,⁴⁹⁾ 행렬을 금지하여 조선인의 어린이날을 방해하였다. 조선소년운동협회는 “상습적으로 금지의 수단을 쓰는 조선의 경찰당국이라 어찌 허가되기를 바라리오”라고 하면서 선전행렬 외에 예정된 다른 활동을 전개하였다.⁵⁰⁾ 이외에 경무국에서는 붉은 글씨로 ‘어린이날’이 쓰인 멜빵을 허락하지 않고, 경관들을 동원하여 압수하기도 했다.⁵¹⁾ 특히 조선총독부는 1923년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조직된 사회주의 진영의 어린이날을 경계하였다.⁵²⁾

1924년 전국적으로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개최하여 130여곳의 소년단체가 일제히 기념식을 거행하고 30만장의 선전지를 배포하였다.⁵³⁾ 조선총독부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가했지만 감시와 통제는 늦추지 않았다. 또한 일부 지역에 대해 각 지방의 경찰부는 어린이날을 허가를 해주면서도 때에 따라 갑작스레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다.⁵⁴⁾ 즉, 조선인들은 어린이날을

44) 1922년 10월 5일 조선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중앙고등보통학교 체육교사로 있던 조철호(趙喆鎬)가 자신의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소년군을 조직하였다. 한국 보이스카우트 운동으로 조선소년척후대와 구별된 성격을 가졌다. 조선척후대가 종교적이고, 순수 보이스카우트 정신을 살리는 경향을 가진 반면, 조선소년군은 “조선사람의 조선군”으로 군대식으로 운영되었다(김정의, 『한국소년운동사』, 민족문화사, 1993 참조 ; 박철하,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0-청년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11~212쪽 참조).

45) 1921년 12월 10일 마상규(馬湘圭)를 중심으로 개성에 조선소년단 창립사무소가 개소되었다. 1922년 2월 1일 경성에 있는 조선청년회연합회 안으로 창립사무소를 이전하였다. 조선소년단은 소년문제를 해결하고, 소년의 의식을 개조·양성하여 새로운 조선의 운명을 개척함과 동시에 세계문화 발전에 참여함으로써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 아래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박철하,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0-청년운동-』, 209~210쪽 참조).

46) 4월 28일에 개최된 소년문제강연회는 김기전의 개회사와 김선(金善)여사의 ‘어린이의 설움’, 김일선(金一善)의 ‘장래 행복은 별무타도(別無他道)’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으며, 유성준(兪星濬)의 ‘사회개조의 근원’이라는 주제로 “무엇보다도 사회를 개조하려면 먼저 어린이의 문제를 해결치 아니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覺醒한父母의絶叫』, 『동아일보』, 1923년 4월 30일 3면).

47) 「五月一日로 “少年日”」, 『동아일보』, 1923년 4월 20일 3면.

48) 「오늘, 어린이날」, 『동아일보』, 1923년 5월 1일 3면.

49) 「實行은家庭으로始할것」, 『동아일보』, 1923년 4월 29일 3면.

50) 「行列은 依例禁止」, 『동아일보』, 1923년 5월 1일 3면.

51) 「新記録을添한 昨日의 少年運動」, 『동아일보』, 1923년 5월 2일 3면.

52) 1923년 3월 5일 경성에서 이원규와 고장환 등의 발기로 반도소년회(半島少年會)가 창립되었다. 이 소년회는 ‘무산소년운동’을 목표로 조직된 단체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정홍교 등이 중심이 되어 서울소년단을 조직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집회가 금지되었다. 지방에서는 1923년 7월 20일 마산소년단이 조직되었고, 1924년 12월에는 대구노동소년회가 조직되었다. (박철하,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0-청년운동-』, 229~230쪽 참조).

53) 「盛況일 “어린이날”」, 『동아일보』, 1924년 4월22일 2면.

54) 1924년 경기도 개성, 평안도 선천, 광주에서는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평양에서 개최한 어린이날은 선전행렬과 옥외집회를 허가하지 않았다(「開城의 어린이날」, 『동아일보』, 1924년 4월 26일 3면 ; 「宣川의 어린이날 三少年聯會으로」, 『동아일보』, 1924년 5월 1일 3면 ; 「平壤의 어린이날

개최함에 있어 경무국에 신고를 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신고과정은 1925년 경기도 경찰부장 우마노 세이치(馬野精一)⁵⁵⁾의 어린이날 금지 처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마노는 옥외와 옥내를 포함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집회를 모두 금지하였다. 이에 메이데이와 어린이날 집회 행렬 및 선전은 금지되었다.⁵⁶⁾ 하지만 방정환은 메이데이와 어린이날을 구분하고 어린이날 행사 추진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방정환은 메이데이의 집회와 선전형렬 금지를 어린이날까지 확대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경무국은 방정환의 요구를 받아들여 13도 경찰부에 통지해 주기로 했으나,⁵⁷⁾ 실제 1925년 5월 1일 어린이날이 개최되자 선전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붉은 깃발이 붙은하다면서 불허하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하였다.⁵⁸⁾

이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는 학교에도 개입하여 소년단체에 가입하는 학생에게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강제로 내렸다.⁵⁹⁾ 또한 경찰은 소년단체의 집회를 불허하거나 강연회 등을 중지시키는 등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1925년 조선인 주최의 어린이날은 조선소년운동협회와 오월회(五月會)⁶⁰⁾의 주도권 경쟁으로 1926년부터 개별적으로 개최되었다.⁶¹⁾ 하지만 1926년 순종의 장례일이 음력 5월 1일인 관계로 음력 5월 5일 단오날로 연기하였다.⁶²⁾ 그러나 조선소년운동협회는 조선총독부의 금지 명령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⁶³⁾

1927년에 조선총독부는 오월회와 조선소년운동협회의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허가 문제를 토의하고, 이에 대한 활동에 의문을 가졌다.⁶⁴⁾ 결국 두 단체의 어린이날을 허가하였지만 조선총독부는 3·1운동 이후 민족주의 운동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증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견제를 늦출 수 없었다.

그리고 같은해 5월 13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은 일본 내각척식국장, 내무성 경보국장, 외무성 아세아국장, 指定府縣廳장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비밀리에 보고하였다. 조선총독부는 5월 1일 ‘메이데이’운동을 감시하면서 조선인의 어린이날도 경계하였다. 또, 어린이날에 대해 경무국장은 ‘순연한 아동보호의 목적에 나오는 것은 묻지 않고 집회 또는 운동을 용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소년운동에 숨어있는 사회주의자들과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선전지 등이 붙은하다라고 판단하였다.⁶⁵⁾ 이처럼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주최의 어린이날 행사를 붙은하다라는 판단하

1), 『동아일보』, 1924년 4월 25일 3면 ; 「平壤의 어린이날」, 『동아일보』, 1924년 5월 2일 2면 ; 「이천의 어린이날」, 『동아일보』, 1924년 5월 4일 3면 ; 「千餘의 어린이가 盛大히 行列 光州의 어린이날」, 『동아일보』, 1924년 5월 4일 3면).

55) 우마노는 1920년 황해도 제3부장으로 조선에 왔다. 이후 경상남도 경찰부(1921), 경기도 경찰부(1923, 1925)로 배속되었으며, 1926년부터 1928년 경성부윤으로 있었다. 그리고 1931년 전라남도 도지사를 역임하였다.

56) 「메이데이와 어린이날 集會도 行列도 宣傳도 一切로 絶對禁止」, 『동아일보』, 1925년 4월 29일 3면.

57) 「메이데이와 어린이날 萬般準備가完成 ◇하로가남은“어린이날”」, 『동아일보』, 1925년 4월 30일 3면.

58) 「五月一日의 社會相, 赤에 塞塞한 警察, 宣傳旗使用을 禁止, 어린이 行렬에 사용할 그, 붙다고 금지해야 다시지여」, 『동아일보』, 1925년 5월 2일 2면.

59) 박철하,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0-청년운동-』, 231쪽 참조.

60) 「京城少年指導者」, 『동아일보』, 1925년 5월 29일 2면 ; 박철하,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0-청년운동-』, 238쪽 참조.

61) 安丁福, 「派爭에서統一로-어린이날을 압압두고-」, 『中外日報』, 1930년 4월 21일 3면.

62) 「“어린이날”연극 음력오월일일로」, 『동아일보』, 1926년 4월 30일 3면.

63) 「어린이날中止」, 『동아일보』, 1926년 6월 1일 2면.

64) 「青年會員가 兒童愛護デー」, 『朝鮮新聞』, 1927년 4월 16일 7면.

65)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朝保秘 第1027號 메어-當日の狀況ニ關する件」, 『勞働運動關係』 1, 1927년 5월 13일, 1~2쪽.

고, 노동기념일(메이데이) 집회 명분으로 통제했던 것이다.⁶⁶⁾ 이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소년소녀들이 보는 잡지를 검열하여 독립사상 또는 사회주의 사상이 있는 출판물을 허가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⁶⁷⁾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어린이날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아동보호일’이었다. ‘아동보호일’은 1926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도쿄 메이지신궁 외원(明治神宮外苑)에서 치뤄진 제1회 전국아동보호사업대회의 결의에 따라 매년 5월 5일로 제정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제생원 양육부장 스도 노부지(須藤信治)와 경상남도 히노(日野) 촉탁·부산 탁아소의 기타데 릿센(北出立仙)을 전국아동보호사업대회로 보냈다. 전국아동보호사업대회에는 조선을 포함한 대만, 관동주, 홋카이도 등에 있는 아동보호사업가와 사회사업가 등 375명이 참석하였다. 이 대회는 일본 내무성 사회국장 나가오카 류이치로(長岡隆一郎)가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고, 내무성에 법안을 제안할 만큼 영향력이 있던 대회였다.

당시 이 대회는 내무성에 (1) 아동부조법 제정의 건, (2) 유아(乳兒)보호에 관한 건, (3) 유아(幼兒)보호에 관한 건, (4) 학령아동취학 철저의 건, (5) 정신박약아동보호 교양의 건, (6) 불량아동보호 철저의 건, (7) 육아사업의 건, (8) 아동보호사업의 정제(整齊)의 건 등의 8가지 항목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제출된 사항은 내무성에서 토의된 후 이 대회에서 공개되었다.⁶⁸⁾

내무성은 제출된 8가지 사항 중 ‘유아(乳兒)보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유아애호데이(乳兒愛護デー)’를 전국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의하여 육아사상의 개선보급을 계획하였다. 이 날을 매년 5월 5일로 정하고 방법은 중앙사회사업협회에서 연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잡지 『社會事業』 3월호에 발표하고, 전국에 시행하기로 하였다.⁶⁹⁾ 전국아동보호사업대회의 결의는 일본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도 해당되었으며, 활동내용은 일본의 중앙사회사업협회의 방법을 따랐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내지연장주의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일 내용과 성격

1)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일 내용

조선총독부는 전국아동보호사업대회 결의에 따라 1927년 ‘아동보호일’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시행기관은 내무국 사회과였으며, 조선사회사업연구회와 애국부인회 조선본부⁷⁰⁾가 주최하

66)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1925년에 127개였던 소년단체가 1929년에 293개, 1930년에 461개, 1931년에 473개였다. 하지만 1932년 289개, 1933년 257개, 1934년에 167개, 1935년에 135개로 계속 감소되었다(오세창, 「일제하 한국소년운동사연구」, 『민족문화논총』 1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2 참고).

67)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朝圖秘 第2234號)不穩少年少女讀物譯文送付の件」, 『不許可 出版物 및 削除記事 概要譯文』, 1927년 11월 10일 ; 대표적으로 당시 사회주의 성격을 가진 잡지 『별나라』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1927년부터 1934년까지 57건을 압수·삭제하였다. 이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68) 「全國兒童保護會 慶南代表出席 十二月二日東京에 開催하고 八項을 提案?」, 『每日申報』, 1926년 11월 19일 2면 ; 須藤信治, 「全國兒童保護事業大會の狀況」, 『朝鮮社會事業』 5(2), 朝鮮社會事業協會, 1927, 12쪽 ; 「兒童保護デーの思ひ出」, 『朝鮮社會事業』 8(5), 朝鮮社會事業研究會, 1930, 2쪽.

69) 須藤信治, 「全國兒童保護事業大會の狀況」, 18쪽.

70) 애국부인회 조선본부는 1906년 통감부에 설치되었고, 1910년 한국병탄 이후 1911년 2월 본부규칙을 제정하여 조선총독부로 소재지를 옮겼다. 애국부인회 조선본부의 활동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위문금을 기부하고, 군인원조 등이 있었다. 또한 1922년 5월 교화사업의 일환으로 유치원을 개설하여 일본인과 조선인 아동을 보육하기도 하였다. 『朝鮮社會事業要覽』, 朝鮮總督府 內務局 社會課,

였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¹⁾

- ① 乳幼兒건강 무료 진찰
- ② 소아과 전문가의 『어린이 기르는 법』 講話
- ③ 어린이에 관한 활동사진을 공회당에서 공개

내무국 사회과는 아동정책의 건강·위생·양육법과 같은 일종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아동 보호’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양육법·건강과 관련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에서 강조한 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아동의 양육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아동을 식민지에서 활용할 건강하고, 충실한 인적 자원으로 기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아동보호일’을 시행하였음에도 그 의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28년 4월 17일 조선총독부는 경성부청에서 소학교 및 보통학교 긴급연합교장회의를 개최하여 총독부의 의도를 수행하는 ‘애호데이’ 시행강령을 입안·심의하였다.⁷²⁾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1928년 5월 5일을 ‘아동애호데이’로 제정하고, 각 관공기관을 총동원하여 대규모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이미 조선소년총연맹에서 어린이날을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조선에서는 벌써부터 해마다 오월초순에 조선소년총연맹이 지휘하는 『어린이데이』가 있어 전조선적으로 소년소녀들이 총동원하여 소년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벌써 소연할 사실인데 이제 총독부에서도 금년부터 또 전기와 같은 운동을 개시할 터이라더라⁷³⁾

조선총독부는 ‘아동보호일’을 제정하여 조선소년총연맹에서 개최하던 어린이날의 주도권을 빼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어린이날을 허가하였다. 하지만 ‘과격하 아이디어’를 민중에게 주입하는 혐의가 있으면 허가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다.⁷⁴⁾ 또한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장은 각 지방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에 대해 절대 간섭하지 말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가하라고 하였다.⁷⁵⁾ 이는 조선총독부가 민족주의 진영·사회주의 진영의 민족운동과 독립 사상을 견제하는 동시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아동보호일’에도 참가시키려는 의도였다.⁷⁶⁾

1923, 186~187쪽.

71) ‘유유아애호데이’는 조선총독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정한 날이었다. 1935년에 ‘아동애호주간’으로 통합될 때, 1927년을 1회로 보았다. 이는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每日申報』는 ‘아동보호일’, 『朝鮮社會事業』은 ‘유유아애호데이’를 사용하였다 ; 藤井忠治郎, 「嬰兒の多い朝鮮」, 『朝鮮社會事業』 5(5), 1927, 62쪽 ; 「會報」, 『朝鮮社會事業』 5(5), 1927, 73쪽.

72) 「五月五日は兒童愛護デー, 全鮮津津浦浦まで, 愛護觀念を徹底さす」, 『朝鮮新聞』, 1928년 4월 19일 9면.

73) 「해오는 어린이날 앞서서『兒童愛護』總督府學務局의 新方針, 官公機關總動員」, 『朝鮮日報』, 1928년 4월 24일 2면.

74) 「“어린이날”은 勿論許可 ◇소년운동의 이름으로 ◇過激思想注入은不許」, 『朝鮮日報』, 1928년 4월 24일 2면.

75) 「地方普通學校學生도 어린이날參加自由 ◇절대로 금지하지 않을 방침 ◇少年運動과 總督府方針」, 『朝鮮日報』, 1928년 4월 25일 2면.

76) 같은 해 조선소년총동맹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지만 종로경찰서 미와 와사부로(三輪和三郎) 경부와 기마경관의 난입으로 어린이날 활동을 감시당하였다. 또한 축하하기로 예정되

1928년 5월 5일에 시행된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일’은 지난해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행기관은 학무국이었던 점과 경성부교육회에서 주최했다는 점은 1927년에 개최된 ‘아동보호일’과 성격을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행사에서 조선교육회⁷⁷⁾, 경기도교육회, 적십자사, 애국부인회 조선본부, 조선아동협회, 종교 각 부인단체, 경성 제1공립고등여학교 교우회, 경성 제2공립고등여학교 교우회, 경성여자공립고등보통학교 교우회, 경성 기예여학교 교우회 등 상당수의 단체가 후원하였다. 1928년 ‘아동보호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⁸⁾

- ① 일반에 대한 선전
 - 신문기사
 - 포스터 2천매 및 전단 5만매
 - 라디오
 - 상점에 대한 아동애호선전(표어 게시 등)의 시설을 의뢰할 것
 - 적당한 부인단체에 의뢰하여 꽃을 팔 것
 - 무료로 애호의 작은 기를 배포할 것
- ② 부내 용산장덕유치원, 애국부인회 경성유치원, 적십자사병원에 유유아무료건강상담소를 설치하여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반의 의뢰에 응할 것
- ③ 부내 각 초등학교·유치원의 부형모자회(父兄母姊會)에 대한 講話 기타 適宜의 방안으로부터 애호데이의 취지달성을 논의할 것
- ④ 과학관에서 매주 실시하고 있는 ‘아동데이(コド モデー)’를 확장하여 아동애호의 취지의 철저를 계획할 것
- ⑤ 강연
- ⑥ 활동사진
- ⑦ 고아원과 육아원 아동에게 창경원 개방

학무국은 ‘아동보호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전하였다. 이는 당시 학무국장이었던 이진호(李

있던 안재홍은 경찰의 간섭으로 하지 못하였다. 이밖에도 공주, 제주, 사리원, 군산, 김제 등 많은 지역에서 어린이날은 경찰에 의해 대부분 금지되었다.([雜信], 『동아일보』, 1928년 5월 4일 5면 ; 「午前,宣傳紙配布 午後,屋外祝賀式」, 『동아일보』, 1928년 5월 7일 3면 ; 「少年東亞日報」, 『동아일보』, 1928년 5월 21일 3면.)

77) 조선교육회 회장은 정무총감으로 추대되었고, 학무국장·학무과장·편집과장 등이 주요 임원으로 임명되었던 만큼 관련단체의 성격이 드러난다. ; 조선교육회 연구로는 강명숙, 「조선교육회 기관지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에 나타난 조선인의 활동-제2차 조선교육령기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0(1), 한국교육사학회, 2008 ;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재조일본인 교원 통제: 조선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 임이랑, 「일제시기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에 나타난 조선총독부 학무관료의 조선교육론」, 『한국민족문화』 49,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이 참고된다.

78) 「五月五日은 어린이날 내선아동이 일제히 참가」, 『每日申報』, 1928년 4월 23일 3면 ; 「兒童愛護의 觀念을 一般에 徹底케 당일부내의 여러 가지 주최 五月五日兒童愛護데이」, 『每日申報』, 1928년 4월 24일 2면 ; 「兒童愛護日에 昌慶苑을 開放 경성부교육회의 주최로」, 『每日申報』, 1928년 4월 26일 3면 ; 「해오는 어린이날 앞서서『아동애호』총독부 학무국의 신방침, 관공기관 총동원-경성부 통계 각 기관 동원」, 『朝鮮日報』, 1928년 4월 24일 2면 ; 「아동애호데이 ◇5월 5일로 정해」, 『동아일보』, 1928년 4월 25일 3면 ; 「○全鮮兒童愛護デー」, 『朝鮮社會事業』 6(5), 朝鮮社會事業研究會, 1928, 41쪽 ; 「彙報-兒童愛護デー」, 『文教の朝鮮』 33, 朝鮮教育會, 1928, 128~129쪽.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每日申報』의 기사 하나만 인용하여 ‘아동애호데이’의 존재를 확인했다(이상금, 「초기 어린이운동의 성립과 교육적 의의」 ; 이경민, 「사진」 전시되는 어린이 또는 아동의 탄생 ; 국성하, 「어린이 개념의 변화에 관한 연구-1920년대 신문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軫鎬)가 ‘아동애호’관념에 대해 ‘국가사회의 발전으로 지극당연한 주장’이라고 하면서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일반인에게도 선전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었다.⁷⁹⁾ 그래서 각 상점에 적당한 시설을 두어 아동애호와 관련된 표어를 게시하고, 아동들에게 무료로 아동애호의 작은 깃발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그리고 미츠코시오복점(三越吳服店)·조지아양복점(丁字屋洋服店)·도이모상문당(友井尙文堂)에서 각 1만 본을 기증받았다.⁸⁰⁾

또한 조선총독부는 신문·포스터 및 전단·라디오와 같은 매스 미디어를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아동보호일’을 선전하였다. 조선총독부가 1920년대 이후 매스 미디어를 활용한 선전방식은 식민지 지배 진상을 내외적으로 감추려하기 위함이었다.⁸¹⁾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모든 신문사에 ‘아동보호일’에 대한 기사논설을 게시하고, 신문기사에 필요한 조사수집에 대해서는 후원단체에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주었다. 그리고 포스터 5만 매를 인쇄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고, 전단 2천 매를 일반에 배포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라디오 방송을 적당한 강사에게 맡겼는데 구연동화가였던 구루시마 다케히코(久留島武彦)가 아동시간에 방송을 맡았다. 구루시마 다케히코는 구연동화가로서 일본 내에 상당한 입지를 가진 인물이었다.⁸²⁾ 조선총독부는 매스 미디어로 ‘아동보호일’을 선전하면서 그들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 취지는 조선인에게 총독부를 미화하는 작업이었고, 나아가 미래의 제국신민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1927년 개최된 ‘아동보호일’과 달리 폭넓은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학무국에서 개최한 ‘아동보호일’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경성공회당에서 경성경성제국대학 의학박사 도바시 고타로(土橋光太郎)가 강연회를 갖고, 일반인들에게 청강할 것을 권유하였다.⁸³⁾ 즉, 조선총독부는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여 ‘아동애호’관념을 보급하려 했고, 그들의 정책 의도를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1927년 조선총독부는 은사기념과학관이 설치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⁸⁴⁾ 이미 은사기념과학관에서는 1928년 3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아동데이’를 개최하고 있었다.⁸⁵⁾ 그리고 학무국에서는 ‘아동데이’를 ‘아동보호일’로 확장하여 ‘아동애호’취지에 맞게 계획할 것을 요망하였다.⁸⁶⁾

79) 李軫鎬, 「兒童愛護觀念 普及에 對하여 李學務局長」, 『每日申報』, 1928.4.24. 3면 2단.

80) 「彙報-兒童愛護デー-」, 129쪽.

81) 강만길,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 38~39쪽.

82) 구루시마 다케히코(1874~1960)는 1906년 일본에서 최초 구연동화대회를 개최하였다. 1923년 아동보호연구회의 감수고문이었으며, 사와라비 유치원장(早蕨幼稚園長)과 문부성 촉탁(文部省囑託)을 겸하였다. 그리고 일본 뿐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서도 활동하였고, 주로 동화를 구연하거나 아동 관련 강연을 주도하였다.

83) 「彙報-兒童愛護デー-」, 129쪽.

84) 1927년 은사기념사업으로 특설·개관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은사기념과학관의 경영을 조선교육회에게 맡기고, 초대 관장으로 해군소장이었던 시게무라 기이치(重村義一)를 부임시켰다. 은사기념과학관 이사장은 조선교육회이사장이었고 이사장은 직접 이사를 지명할 권리가 있었다(「恩賜紀念 科學館月報」, 『每日申報』, 1927년 8월 5일 3면 ; 국성하, 「일제 강점기 박물관의 사회교육적 성격 연구-「恩賜紀念科學館」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3(2), 한국교육사학회, 2001 ; _____, 「은사기념과학관 과학교육의 의미 연구」, 『교육사학연구』 15, 교육사학회, 2005 ; 송민영, 「일제강점기 초등 ‘교과 외 활동’에 관한 고찰」, 『교육학연구』 42(2), 한국교육학회, 2004 ; 정인경, 「은사기념과학관(恩賜紀念科學館)과 식민지 과학기술」, 『과학기술학연구』 5(2), 한국과학기술학회, 2005 ; 이경선, 「“식민지에 설립된 제국의 과학관”-일제강점기 恩賜紀念科學館의 과학보급사업, 1925-1945-」,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석사학위 논문, 2012 등 참고 ; 朝鮮總督府, 「恩賜紀念の科學館」, 『朝鮮』 135, 1926, 145쪽).

85) 당시 은사기념과학관의 ‘아동데이’에는 900명의 관람객이 입장하려고 했으나 빠르게 만원이 되어 입장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兒童愛護デーに就て」, 『朝鮮新聞』, 1928년 5월 6일 9면).

또, 고아원과 육아원 아동에게 창경원을 개방하여 구경하도록 하였다.⁸⁷⁾ 그리고 여성단체에게 꽃을 팔게 하여 그 수입으로 그날 참가한 고아와 빈아에게 다과·점심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은 조선총독부의 이미지를 미화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활동은 활동사진반에서 영사하여 선전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아동애호 표어를 기록하고 자막(字幕)의 영사를 의뢰하였다.⁸⁸⁾ 활동사진반은 조선총독부의 표면적으로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국내외로 ‘아동보호’의 모습을 선전하였다. 조선총독부의 표면적인 선전은 1921년 일본 내무성에서 제시한 ‘식민지에서의 아동보호’ 방법으로 보인다. 일본 내무성에서 제시한 ‘아동보호’ 방법은 국내외로 좋은 모습만을 선전해야 했고, 조선에 있는 종교단체를 회유하여 국제적으로 식민지배의 진상을 감추고자 하였다.⁸⁹⁾

그리고 1929년 ‘아동보호일’은 내무국과 학무국에서 시행한 활동을 종합하여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기사들이 대거 보인다. 이는 당시 1929년 5월 6일 제3회 ‘유유아병아동애호일(乳幼兒並兒童愛護日)’이라는 이름으로 기사로 선전하였다. 당시 주최와 후원단체는 경성부, 조선사회사업협회, 同 경기도지부, 적십자사 조선본부, 한진달재단⁹⁰⁾이었다.⁹¹⁾ 이밖에도 애국부인회조선본부도 참여했다.⁹²⁾

- ① 활동사진 야외영사
- ② 라디오 방송
- ③ 아동구강무료진찰
- ④ 임신부무료상담
- ⑤ 유유아並아동무료건강상담
- ⑥ 창경원 관람자 우대

위의 내용은 경성에서 개최된 ‘아동보호일’내용이다. 주된 내용은 아동의 건강과 임신부무료상담이다. 특히 이번 해에 처음 참가한 한진달재단에서는 이 행사를 맞이해 유아건강상담소를

86) 당시 5월 6일에 개최된 은사기념과학관의 ‘아동보호일’ 활동은 시계무라 관장의 훈화가 있었고, 이와 사 히코지(岩佐彦二)는 관람 설명과 물리실험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일본 국가연주가 흘러나오면 모두 기립하여 경의를 표했다. 또한 내광영화각종 실험·비행기와 관련된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있었다(岩佐彦二, 「科學館の兒童デー」, 『文教の朝鮮』 32, 朝鮮教育會, 1928, 103~107쪽).

87) 창경원의 연구로 서태정, 「1910년대 ‘창경원’의 운영과 그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6이 참조된다.

88) 「彙報-兒童愛護デー」, 129쪽. 활동사진반은 1920년에 조선총독부 관방 문서과 소속이었다. 1920년 11월 정보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위원회 산하에서 활동하였다. 1924년 12월 정보위원회가 해산되자 내무국 사회과로 이전하고, 1932년 2월 내무국 사회과와 종교과가 병합하면서 학무국 사회과로 병합되었지만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문서과로 재이전되었다(김정민, 「조선 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의 교화 영화 정책 출현 배경에 관한 고찰」, 『한국문학연구』 3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288~289쪽 참고).

89) 복환모, 「1920년대 초 조선총독부 ‘활동사진반’의 역할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24, 한국영화학회, 2004 ; 조성운, 「1920년대 초반 朝鮮情報委員會의 宣傳活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참조.

90) 1922년 6월 13일 경성부 관철동(貫鐵洞)에 거주하는 한진달(韓鎭達)은 ‘교육사업 및 방빈구빈(教育事業及防貧救貧)’ 등 사회정책에 관한 사업을 행하고, 사업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재단법인 한진달 재단’을 총독부로부터 설립·허가받았다(「韓鎭達 財團 許可」, 『每日申報』, 1922년 6월 18일 2면).

91) 「乳幼兒의 妊産婦를 無療로 診察한다 활동사진과 라디오방송까지 第三回乳幼兒愛護日」, 『每日申報』, 1929년 5월 3일 2면 ; 「診察과 講演과 映畫로 乳幼兒愛護를 鼓吹」, 『每日申報』, 1929년 5월 6일 2면.

92) 『朝鮮社會事業要覽』, 朝鮮總督府, 1929, 10쪽.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상담소의 대표자는 내무국 사회과장이었던 가미오 가즈하루(神尾一春)였다. 그리고 사무원 1명, 의사 1명, 간호사 1명을 두었다. 그리고 6세미만의 아동에 대해 건강상담을 시행하여 5월 5일부터 8월 1일까지 상담받은 아동은 235명에 달했다.⁹³⁾

또한 애국부인회 조선본부에도 마찬가지로 오하시 지로(大橋次郎)가 유아건강상담소를 두었다. 상담내용으로 젓먹이 취급방법, 모유먹이는 방법, 건강문제 등 아동의 양육과 보육에 관한 내용이었다.⁹⁴⁾ 이처럼 ‘아동보호일’은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리고 충청도 공주·대전·천안·조치원·강영 등 5개 지정면을 비롯해 강원도 원산과 평안북도 정주, 대구와 함흥에서도 ‘아동보호일’이 개최되었다. 특히 대구와 함흥의 ‘아동보호일’ 활동에서는 신사에 아동을 참배시켜 아동건강기도식이 있었다.⁹⁵⁾

이처럼 조선총독부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아동보호일’로 아동정책을 전개해나가는 한편, 조선인 아동을 일본인화하려 했다. 그러기 위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던 조선인의 어린이날을 탄압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운동도 경계해야 했다. ‘아동보호일’의 활동으로 조선총독부는 어린이날의 주도권을 뺏어오는 동시에 사상적인 핑계로 어린이날을 탄압하였다.

2)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일’ 성격

전술하였듯이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일’은 국제사회에서 부각된 아동의 중요성과 일본의 식민지 아동보호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여 탄생했다고 과언이 아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을 역임했던 마루야마는 ‘아동보호’의 목적을 인구증가와 연결하여 양육과 보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1927년부터 개최된 ‘아동보호일’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그 활동을 살펴보면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중심이었다. 이는 당시 우생학적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아동의 건강과 관련해서 무료진찰 또는 무료건강상담소를 설치하였다. 처음 조선총독부는 ‘아동보호’에서 양육과 보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의 아동정책은 건강·위생·양육법과 같은 일종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아동보호’사업이 중심이었다. 이는 ‘아동보호일’을 처음 시행했을 때부터 그 성격이 드러난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아동의 건강과 보육에만 신경쓰는 모습이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1928년 ‘아동보호일’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치원과 적십자사병원에 무료건강상담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29년 한진달재단과 애국부인회 조선본부는 유아건강상담소를 설치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두 번째, 조선총독부가 임산부 무료 상담소를 설치한 까닭에는 건강한 아동을 낳기 위한 목적이였다. 세노 요시오(瀨尾義男)는 일반아동 애호를 모성애호의 연장선상으로 보았다.⁹⁶⁾ 그리고 산부의과 의사였던 구도 다케기(工藤武城)는 아동애호의 근본문제를 ‘우량한 종의 보존’으로 보았다. 우량한 종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렇게 통해 낳은 종은 국가가 교육하고, 보

93) 『朝鮮社會事業要覽』, 朝鮮總督府 內務局 社會課, 1929, 10쪽.

94) 『朝鮮社會事業要覽』, 朝鮮總督府 內務局 社會課, 1929, 10쪽.

95) 「兒童愛護데이 忠南道の 事業」, 『每日申報』, 1929년 5월 5일 3면 ; 「各地의 兒童愛護日-天安-」, 『每日申報』, 1929년 5월 7일 5면 ; 「各地의 兒童愛護日-元山-」, 『每日申報』, 1929년 5월 7일 5면 ; 「兒童愛護日에 嬰兒健康診斷」, 『每日申報』, 1929년 5월 4일 3면 ; 「各地의 兒童愛護日-定州-」, 『每日申報』, 1929년 5월 7일 5면 ; 「定州의 兒童愛護데이」, 『每日申報』, 1930년 5월 6일 3면 ; 「兒童愛護데-에 記念出版物發行」, 『每日申報』, 1930년 4월 24일 3면 ; 「咸興의 兒童愛護데- 實行方法 宣傳」, 『每日申報』, 1930년 5월 2일 6면.

96) 瀨尾義男, 「兒童に對する社會觀念の改造と兒童保護事業の立法化を提唱す」, 『朝鮮社會事業』 8(5), 1930, 2쪽.

호하고, 애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스파르타와 비교하면서 신체적인 방면과 정신적인 방면을 강조하여 우량아 보존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우량한 종만 보존하고, 비상한 악질자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⁹⁷⁾ 또한 도요시마 사다키(豊島貞樹)는 “아동보호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제2의 사회를 권성하는 분자로 있는 곳의 아동을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아동보호사업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인정해야한다. 나는 일본에서의 아동보호사업의 발전을 생각하는 동시에 장래 서로 제휴하여 아시아의 대국(大局)에 있어서 가야할 조선에서의 제2의 국민이 되는 아동보호의 사업의 발전도 항상 마음에 염두해 두고 있어야 한다.”⁹⁸⁾고 하였다.

4. 결론

조선총독부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아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보호’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아동 노동력 착취와 위생, 고아 및 부랑아 문제 등이 아동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아동보호’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21년 제2회 국제소년보호회의에서 논의된 ‘아동보호’방법의 일부를 채용하고 ‘식민지에서의 아동보호’의 필요성까지 언급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언급한 ‘식민지에서의 아동보호’의 본질은 향후 벌어질지 모를 전쟁에서 동원과 산업화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 확보였다는 점에서 침략적·수탈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아동보호일’을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아동보호일’을 도입하기 전 국제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교묘하게 이를 이용해 아동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식민지에서의 아동보호’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상담소 설치, 감화 교육, 고아 및 빈아 양육, 도제(徒弟)와 노동자의 교육 등의 활동이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관료들은 조선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과 잡지에 ‘아동보호’에 대한 논설을 게재하였다. 이뿐 아니라 1921년 반민반관 단체인 조선사회사업연구회를 조직하여 각 지방에도 ‘아동보호’정책을 수행하게 하였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아동정책이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여 선교사들을 초빙하여 총독부의 아동정책 방향을 밝히기도 하였다.

둘째, 조선총독부는 당시 확산되던 조선인의 어린이날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그들만의 ‘아동보호일’을 시행하여 그 주도권을 뺏으려 하였다. ‘아동보호일’은 어린이날과 유사한 성격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아동정책의 내용이 대거 투영되었다. 조선총독부의 아동정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아동정책을 전개시킨 목적은 아동을 조선인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아동정책은 아동보호일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진다. 즉, 조선총독부는 ‘아동보호일’을 통해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식민지에서 활용할 인적자원을 육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정책은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아동보호’정책의 침략적 본질에 대해 주목하지 못하였다.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식민 정책은 외면적으로 호의적으로 느낄 수 있지

97) 工藤武城, 「兒童愛護の根本問題」, 『朝鮮社會事業』 8(5), 1930, 10쪽.

98) 豊島貞樹, 「朝鮮に於ける兒童保護に就て」, 『朝鮮社會事業』 8(5), 朝鮮社會事業協會, 1930, 13~18쪽.

만, 내면적으로 본다면 식민지에서 활용할 조선인 인적 자원으로 육성코자 하는 의도였다. 조선총독부의 식민 정책은 조선인 아동에게까지 적용되었고, 조선인 인적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강·위생에 관심을 가진 한편, 조선인 아동을 회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